

## 미래 인류 역사는 한민족이 지배한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우리 민족이 군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강대국이 되기보다 문화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한글 보급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운 상승은 이미 1980년 이후 구세진인 정도령님의 5대 공약이 시행되면서 한민족의 경제와 한류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하며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경기가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한민족의 축복으로 한국이 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고, 정도령의 5대공약 말씀대로 1990년 구소련의 붕괴와 세계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왔다. 나아가 세계는 점차 한국 중심의 국제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한류 문화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단군 민족이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단지와 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밝혀지고, 한민족을 통하여 모든 경전에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여 불사영생의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때이다.

고조선이 망하고 열국으로 분열된 이후, 일연스님에 이르기까지 약 1400년이 지나는 동안, 조상 단군이 있었으나 조상이 있다고 역사에 기록하지 못했고, 고대 조선의 나라가 있었으나 조선이 있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중국의 억압과 역사 왜곡으로 천손 민족의 긍지는 사라지고, 조



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을 굴종과 암흑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민족 가운데서 구세진인 정도령이 출현하여 온전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고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가 드러났다.

물론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와 조상의 뿌리를 찾기까지 단군 민족의 숨은 역사와 민족혼을 지켜온 선지자의 지혜와 희생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옛날 금수와 같은 미개한 시대에 인간의 본성을 깨우쳐 가르쳤던 단군 민족의 인내천 사상과 홍익인간 사상이야말로 만고의 진리였고 오늘날에도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의 후손이라 하며 스스로 동물적 인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자손인

인간을 흠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이라 가르치고 있는 창조론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 인간은 누구나 조상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왔다

이 시대 인내천 사상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려면 올바른 역사관과 우주와 인간간의 본질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기존의 유물론적 진화론이나 흠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인간 창조론의 가설로는 새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없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과 만물이 신이라는 범신론과 우주 변화론의 새로운 우주관이 정립될 때, 비로소 인류사는 완성의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인류사에 지고

지선(至高至善)의 철학이 있다면 불사영생의 학문일 것이며, 이것이 홍익인간 사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저마다 불사영생의 홍익사상으로 인생관이 정립될 때, 비로소 인류 평화와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지상천국, 불국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이 한민족에게서 나왔고 한민족이 인류를 선도해 나갈 신의 학문이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경전과 예언서가 예언하듯이, 단군 민족은 단순히 이름만 천손 민족이 아니라, 미래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심판자 민족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천손 민족의 자부심은 단군신화의 역사가 있었기에 조상 단군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21세기 오늘에 와서 단군 민족사에 대하여 일연스님이 대놓고 비밀을 말할 수 없어 삼국유사에 숨겨놓은 환인의 서자 환웅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수천 년간 숨겨온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혀 주신 구세진인 정도령님께 깊이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조상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왔기에 '인류는 하나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하는 말씀은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참 진리요, 인류가 하나 되게 하고 자유롭고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기본법이 될 것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7>, <298>

###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이 뱃속의 기압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몸 안의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높아지면 자연히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몇 시간씩 서서 큰소리로 설교를 해도 피로한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단전호흡하는 사람에게만 자기네들 수

려에 영향을 주는 것이겠지만, 사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고 호흡하면 잡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기도할 때나 일할 때나 항상 강도 좋아집니다. 이 사람이 몇 시간씩 서서 큰소리로 설교를 해도 피로한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단전호흡하는 사람에게만 자기네들 수

###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

사람은 이런 육신을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먼저 몸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잡념이 없어져야 하고 잡념이 없어지려면 아랫배에 항상 힘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생활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야 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게 되면 힘이 강해져야 피가 변하고 몸도 변합니다. 사실 아랫배에 힘을 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바로 몸 안에 기압만 높여 주는 게 아니라 혈액 순환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몸 안의 기관들도 활성화됩니다. 그런고로 예배를 볼 때도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보면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죽음이 날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정수리부터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 이기는 삶

우리 뇌는 충분히 반복되어 정보 전달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것에는 저항(抵抗)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이 몸에 익을 때까지는 21일간 의식적으로 노력(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21일은 생각이 대뇌피질에서 뇌간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생각이 뇌간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심장이 시키지 않아도 뛰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된다.

21일 법칙은 무엇이든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법칙으로 승리제단(勝利祭壇)이나 예일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동양에서 내려오는 '21일간 소원을 빌며 자기 도장을 찍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기운만을 불러들인다.'는 일종의 전통과 유사하다.

승리제단에 처음 나오면 21일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한다. 승리제단은 매일 예배를 드린다. 6000년 묵은 죄의 때를 매일 조금씩 벗겨내는 것이다. 의심이 나도 꼭 잡고 21일을 알아보는 동안 조급식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다.

차츰 영생(永生)이 믿어지고 영생이 나에게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된 육은 죽고 영이 천당에 간다는 영육분리(靈肉分離)의 고정관념이 점차 영육일체(靈肉一體)로 납득이 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게 된다. “이 바보가 왜 여태 이것을 깨닫지 못했단가?”

## 21일의 법칙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새롭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나의 가슴에 스며들어 사막 같은 심령(心靈)에 생수가 되어 흐르게 되는 것이다. 나 가난한 복자 귀한 성에 들어오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 버렸네. 입에서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나를 이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기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感謝)하고 먼저 나온 신앙(信仰)의 형제들이 너무나 고맙고 정답게 느껴진다.

이후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보이고 빨리 이 진리를 전해서 저들도 이 진리에 동참하게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른다. 이것이 바로 초심(初心)이다. 처음 승리제단에 나와서 이기신 하나님을 알고 너무나 감격했던 그 마음으로 자유율법(自由律法)을 지키는 생활을 하루 24시간, 21일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사고를 벗어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21일동안 자유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약 5년 동안 말실에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1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일 동안 온전한 자유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3일 만에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떨어지고, 또 어떨 때는 20일째 되는 날 떨어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을 계속하여 마침내 자유율법을 온전히 21일을 지키니 '이겼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긴자 조희성님의 말씀이다.\*

## 격암유록 賽三五 (새삼오)

西氣東來求世眞人 서기동래구세진인

서양의 기독교 기운이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의 나라가 되는 한국으로 와서 성경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는 인봉된 말씀이 '사람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에 의해서 풀어지니, 이는 진인(眞人)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만인을 구제하는 설교의 주된 내용이다.

※ 서기(西氣); 유불선(儒佛仙) 삼교(三教) 가운데 마지막 선교(仙敎)는 동선(東仙)과 서선(西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선(東仙)은 '사람은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중심 교리로 하는 천도교(天道敎)를 지칭하며, 서선(西仙)은 서양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基督敎)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서기(西氣)란 서양의 기독교 기운(氣運)을 뜻한다.

天生化柿末世聖君 천생화시말세성군  
天人出豫民救地 천인출예민구지

其時閉目忽開 기시폐목홀개  
龍耳口亞聽吹吹歌 용이구아청취취가  
半身不隨長伸脚 반신불수장신각  
廣野湧出沙漠流 광야용출사막류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시(柿; 감나무 즉 성경상의 감나무)의 칭호를 가지고 무부지자(無父之子; 성령으로 잉태된 천생자天生子 - 격암유록 승운론)로 태어나시니, 그 분이 곧 말세의 주인공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성군(聖君)이네.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정된 땅(小素素砂; 천봉지탁사사립天崩地塌素砂立 - 격암유록 출장론)에 출현하시게 되어 있네. 그때에 장님이 홀연히 눈을 뜨고, 귀머거리(聾聵; 龍+耳)가 듣고, 병어리(亞啞; 口+亞)가 노래를 부르네. 반신불수가 나아사(長長; 聳)다리를 펴서 뛰어다니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 사막(沙漠; 예정된 소사素砂)에 흐르네.

※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자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 사35: 5-6

天釋之人兩手大舉天呼萬歲  
천석지인양수대거천호만세  
천석지인(天釋之人; 자신 속에 하나님이 석방된 사람)은 하늘 높이 두 손을 들고 “만세! 만세! 만세!” 하고 삼창한다.

※ 2002년 4월 28일 백만제단 예배인도 중에 정도령(正道令)께서 성도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였습니다. 이하 설교말씀 인용 - “지금 부르는 만세는 앞으로 온 세상 인류를 영생의 권 안에 들어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는 만세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릅시다. <만세! 만세! 만세!> 이 만세는 하나님이 부르는 만세입니다. 육천년간 마귀에게 포로 생활하다가 마귀의 포로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돼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나님께서 만세를 부르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002년만 되면 어떤 날이 오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만만세를 부르는 날이예요. 이제 내년에 만세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격암유록에 쓰여 있어요.” - 2001년 7월 2일 설교 말씀 중\*

##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뭄이나 장마, 태풍으로 인해 가을의 쌀 풍년 농사가 잘되리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우리나라 벼농사 평균 통계는 해마다 풍년작으로 쌀 수확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 이처럼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하고, 태풍을 내륙으로 직접 불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마다 풍년 농사로 이어져 쌀 걱정을 면하게 되고, 쌀이 남아돌자 북한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정도령님의 풍운조화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는 덕분이다.



▲ 1981년 이후 계속되는 가을 풍년 쌀농사

자연을 상대로 1차 산업을 하는 모든 농업과 수산업, 임업 등은 적당한 물과 바람, 온도, 일조량 등 기후조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장마나 태풍, 그리고 가뭄이나 냉해 등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과거에는 하늘 탓으

로 돌리고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말씀처럼 구세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민족 가운데서 출현하여 다섯 가지 공약의 축복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보다 큰 행운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과 세계적인 이상 기후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만 4계절 큰 피해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아 정도령님의 5대 공약 실행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격암유록에는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행하는 분이 정도령이며, 그 증표로 '화우로 삼풍해인'을 가지고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부인 3개를 받아와 장수 풍백(風伯), 운사(雲師), 우사(雨師)에게 오사(곡식 · 수명 · 질병 · 형벌 · 선악)를 주관하여 다스리게 했다는 것처럼, 장수 풍백, 운사, 우사는 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다. 구세진인 정도령의 풍운조화 능력은 바로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계승되어 왔다는 증거다.\*

一行徐輔睦

###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영원무궁토록 풍년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리게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속에 응어리가 된 6·25전쟁을 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엄청난 규모의 재산 손실,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만약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반도 국지전의 성격을 넘어서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어 전 인류가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공감할 하게 되

어 있는 일이다. 이긴자 정도령께서는 절대로 그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이다.

이 공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계정세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완전히 종식시키는 방법으로써의 남북통일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정도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